

진도군, 2026 K-브랜드 어워즈 '문화예술도시' 부문 수상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도시' 위상 입증

진도군은 지난 25일에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6 K-브랜드 어워즈에 참석해, '문화예술도시' 부문에서 상을 받으며 영예를 안았다.

'K-브랜드 어워즈'는 TV조선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8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로, 국내 우수 브랜드,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브랜드 경쟁력과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한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진도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생활 문화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했고, 주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진도군은 판소리,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등 풍부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며, 이를 현대적 문화예술과 연계해 창의적인 문화정책을 펼쳐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지역 예술인, 문화 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진도만의 독자적인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

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고흥군, 3월 고흥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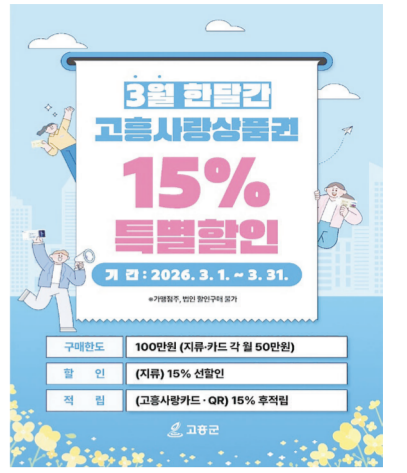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3월 1일부터 한 달간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고흥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지난 1~2월 진행된 '새해맞이 고흥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행사'가 두 달 만에 판매액 1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음에 따라, 민생경제의 활력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특히 신학기 준비와 영농철 시작 등으로 가계 지출이 증가하는 3월을 맞아 상품권 특별할인을 연장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잠재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행사 기간 동안 지류형 고흥사랑상품권은 관내 45개 금융기관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고흥사랑카드와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차크(chak)' 앱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며, 결제 시 금액의 15%가 캐시백으로 즉시 적립된다.

지류형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각각 월 50만 원 한도로 구매(충전)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흥사랑상품권은 관내 2,5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고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새해맞이 고흥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행사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3월에도 특별할인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경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영광군, 자동심장충격기(AED) 대여로 주민 생명 보호 강화

영광군은 오는 3월부터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지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여 대상은 체육행사 등 민간단체 주

관 다중집합 행사 등이며, 행사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대여 기간은 행사 전일 또는 당일 수령 후 행사 종료 즉시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다중이용 또는 고령자·취약계층

참여 가능성이 높은 행사를 우선 지원하며, 행사장 내 안전요원 등 응급상황 대응 인력 확보 여부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이수자 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영광군 보건소장은 "심정지 환자는 4분

이내의 신속한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한다"며 "지역행사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시에 사용해 주민의 생명보호 및 응급상황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심장충격기 대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의약관리팀(☎350-48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구례군,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개최

전남 구례군은 지난 24일과 25일 구례읍 통합어울림센터 대강당과 마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및 신규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제도적 이해를 높이고 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립 취지와 기능, 주민총회 운영의 중요성 등 주민자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기존 위원과 신규 참여 신청자가 함께 역량강화 교육을 수강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함평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교육'

전남 함평군이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직업 소명 의식과 자긍심 높이기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25일 함평군 노인복지관 청춘나눔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에게 직업 소명 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현장 적응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광형 노인인력개발원 강사를 초빙해 사업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참여 어르신들의 직업의식과 책임감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보람과 행복이 넘치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무안군,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장 추가 지정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4일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장으로 청계농공단지 기숙사가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인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주관 제도로, 지정 기관에서만 운영된다.

군은 평일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여건을 고려해 주말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해 왔다. 다만 교육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추가 교육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존 삼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에 이어 청계농공단지 기숙사가 교육장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사업장 근로자들이 생활권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6월부터 기존 1개 반을 2개 반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무안군 제공

Goheung Spaceship Terminal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2026.5.2. (토) - 5.5. (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